

지역(공공)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4. 7. 15. 문화일보 「정부, 지역배달앱에 온누리상품권 허용... 배민 등 견제」 기사에서 “정부가 지역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배달앱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또 이달 중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소상공인 배달수수료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관계부처 입장>

-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(공공)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을 검토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한편, 정부는 「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」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7월 중 신속히 출범 가동하고, 하반기 중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승태 (044-215-4510)
		담당자	사무관	박가영 (gayoung0816@korea.kr)
담당 부서	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형철 (044-204-7920)
		담당자	사무관	정지수 (water1357@korea.kr)
담당 부서	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재경 (044-201-2151)
		담당자	사무관	박태준 (wnsoqkr@korea.kr)
담당 부서	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설민 (044-200-4365)
		담당자	사무관	박하은 (haeunpark@korea.kr)
담당 부서 (온누리상품권)	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전통시장과	책임자	과 장	안원호 (044-204-7890)
		담당자	사무관	윤성웅 (swyoon21@korea.kr)